



보험연구원

보 도 자 료

2009. 5.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8. 5. 18. (월)	담당자	이진면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연구원(3775-9051)	연락처	3775-9015	총 2 매

제목 : 중장기 전략으로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 필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 적극 고려해야

- 철저한 사전 현지조사 및 전문 인력확보가 진출 성공의 열쇠 -

보험연구원(원장 : 나동민)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는 취지에서,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이진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슬람 지역은 현재 높은 경제 성장과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슬람교도 수, 그리고 잠재적 보험소비자인 이슬람지역 청·장년층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세계 보험업계로부터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더욱이 이슬람보험시장은 2015년경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약 90억~130억 달러로 성장하여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중장기 전략으로 타카풀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 타카풀은 전통적인 보험의 대안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상호부조와 각출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협동적 보험을 말함.

보고서는 타카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구체적인 진출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슬람 율법에 관한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타카풀시장 잠재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균형된 시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타카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보험 성격의 리타카풀시장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진출 국가와 관련해서는 이슬람 주요 국가들의 보험 및 타카풀 관련 인프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중동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는 UAE는 보험시장 인프라를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험시장 발전이 타카풀시장 발전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전체 보험시장에서 타카풀시장 규모가 비교적 커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비교적 선진 보험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역시 현재 규모는 작으나 정부의 개방화 정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밝은 편이다. 이슬람 국가들 중 타카풀 및 보험시장 인프라가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타카풀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미 타카풀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말레이시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푸르덴셜과 도쿄해상HD의 전략에서 보듯이 광범위한 지점망을 가진 현지 대형 은행과의 제휴를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조기정착에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슬람권이더라도 국가마다 샤리아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과 해석, 금융 및 보험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규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해당지역 타카풀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주요 내용. 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iri.or.kr